법무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 11. 3.(화)

정부, 여수·순천 10·19사건 희생자 고(故)박찬길 검사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

법무부(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)는 **여수·순천 10·19사건**(소위 '여순사건') 당시 좌익협의로 희생되었던 고(故)**박찬길 검사의 유족**에게 **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***에 대하여 **항소**를 **포기**하기로 **결정**하였습니다.

*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. 10. 29. 고(故)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고인과 가족들의 위자료로 총 6억 9,000만원의 국가배상판결을 선고하였음

고(故)**박찬길 검사**(1910년생)는 1947년 11월 7일 **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**로 임관한 후,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적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습니다. 그러나 **여순사건 발생 직후**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고인을 **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**하였고, 그 무렵 고인의 **부친 박인서씨(氏)**도 단지 '고인의 부친'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함께 연행되어 **고문으로 사망**하였습니다.

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, **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가 없다**는 취지의 **국가기관 조사 및 국회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었음**에도 국가의 사과나 배상 등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.

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"**여순사건 제78주기**를 맞아 **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**을 **보호**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**고인의 명예를 회복**하고,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**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**될 수 있도록

항소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. 법무부는 앞으로도 **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행정**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"라고 밝혔습니다. ▨

법무부	법무실 국가소송과	책임자	송무심의관 강선주 (02-2110-4382)
			과 장 국 진 (02-2110-3202)
			검 사 김다락 (02-2110-4386)
		담당자	사무관 이현진 (02-2110-320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